

## [목회자 모임] 안식 안에 있는 아들

2020. 2. 7. 이현래 목사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아들이 예배다. 아들로서만 예배가 되는 것이다.

요즘 급격히 뜨는 젊은 목사가 TV에서 설교를 하는데, 예배를 잃지 말아라. 예배를 떠나지 말아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예배라는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생소한데, 예배를 떠나지 말아라. 예배를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물론 교회도 잘 오게 하려고 한 말일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진짜로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들밖에 없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아들과는 다르다. 자기 형상으로서의 아들이니까 자기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필요는 자기 형상화다.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나타나는 그것이 아들이다. 그러므로 아들이라야 예배가 된다. 아들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씀을 하셨다.

5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안식일에 대한 말이 있다. 안식일은 십계명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 계명이다. 앞에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후반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이고, 그 중간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들어있다. 다른 계명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까지는 나왔지만 그렇게 심하게 한 말이 없는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범하는 자는 죽일지니라는 말이 붙어 있는 계명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식이라는 말은 쉬다는 말인데, 쉬라는 것을 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쉬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왜 그것이 되지 않는가? 사람에게 제일 안 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날짜는 지켜지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날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일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싫은 일이다. 5장에 그런 말이 나온다.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은 일은 나는 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나도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아버지가 하시면 하면 참 쉬운데,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우리가 그의 형상이라면 당연히 내 마음이 가는데 내 손이 가지 않겠는가? 내가 내 몸이 내 형상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가고 싶으면 걸어가는 것이다. 내가 가고 싶으면 당연히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전혀 이상이 없다. 항상 안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둘이 분리되어 있다면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안 움직이면 나도 안 움직이는 것인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다.

광야 40년 동안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 생각해보면 왔다 갔다 하느라고 40년이 걸렸다. 큰일을 하느라 40년이 걸린 것이 아니다. 바로 가면 열사흘 길이면 간다는데 40년이 걸렸다. 왜냐하면 구름기둥이 뜨면 가고, 가라앉으면 앉고, 그것이 또 기약도 없다. 일주일을 머문다든지 삼일을 머문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삼일을 머물지 일주일을 머물지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름기둥이 뜨면 뜨고, 가라앉으면 나도 가라앉는다는 그 말이다.

이것이 기계라면 모르지만 사람은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날짜를 정해 놓고 하면 쉽다.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지킨다고 하면 그것은 날짜가 정해 졌으니까 쉽다.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어렵겠는가? 광야생활은 날짜가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자기 간도 쓸개도 다 빼놓아야 가능하지 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쓸개 가지고 있으면서는 참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어려운 것이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기약이 없다.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여러 번 불발탄을 날렸다. 언제 온다고 난리를 쳤는데 또 오지 않았다. **“때와 시기(기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행1:7)라는 말씀을 가지고 방어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때와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는데, 너희가 왜 때를 정했느냐? 그러니까 안 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오죽하면 날짜를 정하겠는가? 하다하다 안 되니까 끝에 가면 되지 않지만 날짜를 정해 놓은 것인데,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안식일처럼 쉬운 것도 없고, 안식일처럼 어려운 것도 없다.

왜 안식일이 정해졌는가? 하나님은 자기 일을 마쳤기 때문에 쉬웠다. 그래서 그날을 복

주어 거룩하게 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는 내 안식에 참여하라는 뜻이다. 내가 안식을 다 마치고 쉬니까 너희도 쉬라는 뜻이다. 창조자는 창조를 마치고 쉬었으니까 피조물은 함께 쉬어야 한다. 그런데 창조는 마쳤는데, 피조물을 쉬지 않는다면 힘든 것이다.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아주 적절한 시기에 출하를 해야 한다. 그 시기를 넘어가면 사료가 손해가 난다. 왜냐하면 먹은 것만큼 크지를 않는다. 양식업을 하는 사람은 다 그렇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출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크게 손해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를 해놓았는데, 피조물이 계속 일을 한다면 이것은 버리는 것이다. 창조를 완성해 놓았는데, 뭔가 불만스러우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창조가 헛일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할 때, 사람은 반드시 안식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에 만족해야 된다는 말이다. 내가 키가 작든지 크든지 거기에 만족해야 한다. 내가 열 살 먹고 죽든지 백 살 먹고 죽든지 거기에 만족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해진 것에 만족하라는 말이다.

요즘 세상이 발전되어 갈수록 제일 어려운 것이 이것이다. 왜냐하면 다 자유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많은 제한을 받고 살았다. 이 제한이라는 것이 쉬웠는데, 요즘은 제한을 받지 않고 사는 시대가 되었다. 아이들도 그렇고, 교육이 그렇고, 전부가 그렇다. 자기 주도형이다.

이런 세상에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려운 것이다. 옛날에 종들 같으면 좀 쉬웠을 수 있는데 요즘은 종이 아니고 전부다 자유자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점점 더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자유를 위해 투쟁을 했으니까, 오로지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했다. 전제군주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벗어나고 지금 자유시민이 되었다. 인간의 최종적인 선택은 결국 자유다. 가장 귀중한 것이 자유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못 먹고 못 사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거기는 자유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공산주의가 별거 아닌 줄 생각한다. 자유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내가 대구에 살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 살고 싶어도 부산 갈수 없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도 북한에 가면 고향 사람 찾기가 쉽다고 한다. 이동이 별로 안 되고 그대로 있으니까 아주 쉽다고 한다. 지금 남한에는 사람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 다 어디로 나가버리고 없다. 옛날 고향이라고 가보면 아는 사람이 다 나가버리고 별로 없다. 내가 40년 만에 고향을 가보니 아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의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다. 왜냐하면 통제된 사회니까 계획된 사회이다. 인간이 계획을 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이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사회가 아니다. 공산주의의 문제점은 그것이 제일 문제다.

자본주의가 그래도 살만한 것은 자유가 있는 것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언론출판의 자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자유가 있으니까 이것이 좋은 점이다. 그런데 단지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헛갈리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 자유가 문제다. 종교의 자유도 사실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 자유만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좀 덜 먹고 살면 된다. 그런데 자유가 없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결국은 자유다. 미국의 상징이 자유의 여신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가 좋다는 것이 그것이다. 살기 좋다는 말이 다 똑같이 부자여서 살기 좋다는 말이 아니다. 빈부차이가 엄청나게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빈부차이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다. 왜냐하면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 능력껏 선택해서 살라는 것이다. 그러면 불만이 별로 없다. 내 능력껏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사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이다.

미국에서는 일하는 직장이 아홉시에 출근해서 다섯 시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의 할 일이 정해져 있다. 일만 하면 되니까 늦게 출근해도 된다. 집에 사정이 있으면 열시에 출근해서 여섯시에 가면 된다. 일만 마치면 빨리 나갈 수 있다. 매니저들이 일의 분량을 다 알고 있다고 한다. 이 일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을 알고 맡겨 놓으니까 꼼짝달싹을 못한다고 한다. 우리는 시간만 채우면 되는 직장이 많은데, 미국은 시간을 채우는 것과 관계가 없다. 그래도 문제가 없다. 그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고 자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선교사 밑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매일 같이 일거리를 가지고 준비해서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하다보면 딱 그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우리는 상관들이 지키고 앉아서 몇 시에 출근하는지, 몇 시에 퇴근하는지를 지키고 앉아서 체크하고 있는데, 미국

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자유! 막노동을 해도 자기에 맡겨진 일을 하라고 하면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한다. 시간도 없고 몇 시에 오라는 것도 없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홉시에 정확히 오고, 바로 일하지 않는다, 담배 한 대 피고 쉬면 아홉시 반이나 열시가 된다. 열두시면 정확하게 점심을 먹어야 하고, 점심 먹는데 두 시간 걸린다. 그리고 오후 다섯 시가 되면 퇴근한다. 여름이면 여덟시가 되어야 해가 지는데, 해가 중천에 있어도 일하지 않는다. 일을 시켜보면 돈 주고 일을 시켜보면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모두 맡겨버리면 쉽다. 밤에도 와서 하고, 낮에도 와서 하고, 언제든지 한다.

그래서 자유가 좋다는 것이다. 자유로 하는 일은 내가 죽어도 좋은데, 내가 억압을 받고 하는 일은 싫다는 것이다. 사람이 누구든지 그렇다. 내 자유 안에서 일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억지로 하는 것은 아무리 쉬워도 그것은 싫은 것이다. 안식이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사람이 하는 것이면 모르는데, 보이는 않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니까 그분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잠자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아브라함도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약속한 약속이 10년이 가도 안 되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다. 그냥 간단하게 경솔하게 낳은 것이 아니고, 10년을 기다려서 안 되니까 하갈을 데려다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다. 그 정도 됐으면 됐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적자가 못된다.

그리고 언제 가야 아들을 출지 모른다. 100살까지 갔다.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다 포기했다. 다 포기하고 이제는 끝났다. 나는 포기하고 끝났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들을 주겠다고 한다. 그것이 내 정신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내 정신을 가지고는 따라가기 힘들다. 그러니 어찌란 말인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지 않으면 나도 안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말도 쉬운 것 같지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언제 아버지가 일하시는지 안하시는지 어떻게 아는가? 내 안에서 아버지가 지키고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지하겠는가? 그러려면 정말 영적인 어떤 것이 발달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어도 시원치 않은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께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것처럼 어려운 계명이 없다. 우리 형제들이 처음에 오면서 말은 잘하지 않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라고 말을 잘 하지 않으니까 해야 되는 것인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를 잘 몰라서 많이 헛갈렸다. 내가 무엇을 하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

여기에 이효용 형제도 와있고 정한성이 형제도 와있는데, 내가 무엇을 시킨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목사님이 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잘 모른다. 이것처럼 하기 어려운 것이 없다. 아주 쉬운 일인데, 또 가장 어려운 일이다. 나는 어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쉽게 하려고 한 것이다. 내가 무엇을 시키면 어려울 것이 아니겠는가? 시키지 않는 것은 쉽게 하기 위해서 알아서 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알아서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싶은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안식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묘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이라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온다.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겼다는 말도 나온다. 어찌하면 심판하는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고 나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께서 행한 대로 하고, 아버지께서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니까 내가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다.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내가 심판할 권세가 있다. 너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다 똑같은데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한다.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심판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많이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이다.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서 어떤 규칙을 정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주 어렵다.

어떤 형제가 직장을 갔는데 일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왜 못하느냐고 하니까 자기가 다니던 이전 직장에서는 일하는 매뉴얼이 있다는 것이다. 매뉴얼대로 일하면 쉬운데, 여기는 매뉴얼이 없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을 못하고 말았다.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탁을 해서 취직을 했는데 결국 못하고 나왔다. 왜 못하느냐고 물었더니 매뉴얼이 있어야지 매뉴얼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것이 이해가 되는가? 매뉴얼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사역자를 하신 분들은 알고 보면 자유가 참 많다. 사역하는 분들은 매뉴얼이 없다. 큰 교회는 요즘 회사처럼 하는 것 같다. 몇 시에 모여 기도회하고, 그날 할 일을 분배받고, 나가서 심방한다고 한다. 부교역자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이 100가구면 100가구를 맡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은 작은 교회에서는 그럴 것이 없으니까 심방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는 자유가 있는데 항상 부담은 갖고 있다. 마음의 부담은 항상 가지고 있다. 왜? 심방을 오지 않았다고 교회를 오지 않으면 어찌겠는가? 그것도 참 부담이 된다.

심방을 가봐야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심방을 오라는 것이다. 가봐야 별것도 아니고, 주인은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부엌에 가서 떨그럭거리고 있다. 주인도 앉아있지 않은데 나 혼자 가서 말씀한다고 앉아 있으면 썰렁하다. 그런데서 심방을 와야 된다는 것이다. 참 곤란하다.

우리 대구교회에서는 심방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랬다. 심방을 하는 일이 상당히 어색하다. 이상하게 생각된다. 꼭 필요한 집에 가면 좋은데, 필요하지 않은 집도 가야 한다. 설거지나 하고 자기는 말도 안 듣고 있으니까 간 사람들 끼리 예배라는 것을 보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닌가? 이것이 잘 안 맞는 것이 문제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맞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내 생각이 따로 있고, 하나님 생각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 생각이 다 맞는 일만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이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것이 모든 세상의 문제이다. 안식을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내가 봐도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여럿이 나와서 시끄럽기만 하다. 내가 봐도 저래서는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은데, 자기는 될 줄 알고 설치하는 것이다. 평안이 안 되니까 안식이 안 된다.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요한복음 5장을 읽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것이다. 그렇게만 되면 너무 쉽다. 아마 이것을 제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려면 아마 아무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한다.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것이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이것만 맞는다면 너무 편하고 좋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하고, 안하시면 안하고, 아버지가 쉬라고 하면 나는 쉬고, 이렇게만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문제가 있겠는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이나 의지나 결심을 가지고 시행해보려니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안 된다.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해보니까 안 되었다. 도저히 맞지 않는다. 또 해놓고도 맞는지 맞지 않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다. 쉬워진 길이 하나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안식에 대한 짐이 아니겠는가? 가장 궁극적인 짐은 그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11:30) 그분 안에 무슨 방법이 있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는가?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다 이런 문제이다. 알기는 많이 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가? 아는데 이것이 뭔가 딱 맞지 않는다. 그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남이 다 안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려오라. 해봐도 안 되니까 못 내려가신 그분을 만난 것이다.

다른 것은 다 안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나 아가페나 충성이나 이런 것은 다 안 된다. 흥내는 내지만 안 된다. 있어도 소용이 없다. 그것이 사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준 이런 사랑을 본받아서 하라는 것

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나는 불가능한데 어찌겠는가?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저주다.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고 뜻대로 안되니까 아무리 무엇을 해봐도 다 헛일이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안식을 얻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지극한 사랑이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사랑이다. 들을 때는 좋지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단지 그것을 감사만하고 받기만 하면 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다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받은 것 같은데, 막상 나오는 관계가 없다. 나는 되지를 않았다.

좋은 것은 다 잘한 사람들이 하고, 못한 나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중에서 다 버리고 간 것, 내려오라는데 못 내려온 그것은 버리고 간 것이다. 어디 가서 그것을 자랑을 하겠는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분이라는 것을 어디 가서 자랑을 하겠는가? 그래서 모두 안 가져간 것이다

나는 지금 이제 이것밖에 취할 것이 없으니까 취했는데 너무 좋다. 취하고 보니까 너무 좋다. 너무 편안해진다. 저절로 안식이 온다.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식이 온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안식이 온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줄 때, 자기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 날을 복 주어 거룩하게 했다고 했다. 복주는 날이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날이 아니다. 나를 복 주려고 한 날이니까 그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체가 복이다. 당신이 쉬었기 때문에 우리를 쉬게 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못 누린 것이다. 왜 못 누렸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으니까 못 누린 것이다. 그것을 못 누렸으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만일 쉬라는 그것이 내가 너무 좋았더라면 왜 선악과를 먹었겠는가? 그것이 나한테 좋지 않으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위치가 만족이 없으니까, 안식이 안 된다. 안식이 안 되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안식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그런데 이 안식이 안 되면 우리는 사고를 치게 된다. 아이들이 집안에서 자랄 때, 집에서 안식이 되면 사고를 치지 않는다. 그런데 집에서 안식이 안 되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애를 키우는데 유치원 정도 되었다. 아버지가 아이를 아주 혹독하게 다룬다. 굉장히 혹독하게 꼼짝 못하게 다루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친다. 다른 아이들에게 모래를 눈에 뿌린다. 아버지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밖에서 푸는 것이다. 내 속이 안정이 되고 안식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편안하게 한다. 그런데 내 속이 안식이 안 되고 불만이 되면 그것을 밖에 어디 가서든 풀어야 된다,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무슨 TV인지는 모르겠다. 좀 특이한 TV인데 어떤 여자가 나와서 강의를 했다. 공감에 대해 강의를 한다. 이분은 사람을 상담하는 사람이고 멘토라고 한다. 거기서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것이 멘토가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길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다. 그 사람의 말을 다 듣고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멘토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 아주 맞는 말이다.

예를 들었다. 어떤 사람이 정권이 혼란스러울 때 붙잡혀 가서 엄청나게 고문을 받았다. 나와서 내가 기어코 고문한 사람을 죽이고 말겠다는 작심을 했다. 그래서 항상 칼을 품고 다녔는데, 30년 동안 품고 다녔다. 언제 만나면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항상 뒤를 쫓아 다녔는데, 죽일 기회를 못 만났다는 것이다. 그냥 죽이려면 쉬운데, 그렇게 죽이는 것은 자기가 분이 풀리지 않고 피 한 방울까지 다 흐를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도록 죽어야 분이 풀리겠다고 해서 30년을 칼을 품고 다녔다고 한다.

그 멘토인 여자 분이 교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상담을 하러 그 멘토 분을 찾아왔다. 자기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다 말하더라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 자기가 공감이 가더라는 것이다. 그렇게 됐다면 그럴 만도 하다. 그렇게 고문을 당했으면 그런 원한이 생기겠구나. 그렇게 공감이 가서 같이 공감하여 ‘기어코 꼭 복수를 하십시오. 당신, 꼭 복수하기를 내가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의외로 평평을 더라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마음의 무엇이 씻어져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얼른 들으면 사람을 죽이려고 다니는 사람에게 ‘당신 그 사람 꼭 잡아 죽이십시오.’라고 한다면 큰일 날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 그래야 됩니다. 그런 놈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하고 공감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옆드려서 막 울더라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상하게 그 병이 고쳐졌고, 평생 가지고 있던 그 원한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멘토가 할 일은 그 사람에게 질문을 많이 해서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한다. 목사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나도 성질이 급해서 잘 못

하는데 모르는 것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아 그러겠네, 어려움을 당했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안 되고,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내가 내속으로 진실로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을 해야 진실로 해결이 된다고 한다.

아침에 좋은 것을 배웠다. 나는 상대방에게 잘 안 물어본다. 내가 미리 짐작해버린다. 위로한다는 말이 다 미리 다 아는 것처럼 위로를 하는데, 그것은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보면 빨리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 될 텐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완전히 소화되고 이해가 될 때까지 나라도 그러겠다고 그렇게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을 해보라는 것이다. 공감이 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공감만 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감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동산에서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그런데 왜 먹었는가? 결국 공감이 안 되었다. 이것은 내 해석이다. 공감이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공감될 자리가 어디겠는가? 한군데밖에 없다. 예수님과 내가 공감될 자리가 한자리밖에 없다. 다른 데는 다 공감이 안 된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해도 나와는 공감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공감이 안 된다.

그런데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데 못 내려온다. 그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가? 히브리서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히12:2)라는 말이 나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2)는 말이 나온다.

무엇이 부끄러운가?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그런데 못 내려오니까 이것이 부끄러움이다. 사람들이 나를 다 하나님 아들로 알고 있다면 내려와 보라 할 때, 당당히 내려가야 되는데 나는 못 내려간다. 이것이 부끄러움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고 하는데 대답을 할 수 없다. 부끄러움이다. 이 부끄러운 자리가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자리다. 나에게 공감이 되는 자리다. 내려와 보라. 그런데 못 내려오는 그 자리가 나와 공감이 된다. 다른 데는 공감이 안 된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인 자리에 가도 공감이 안 된다.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을 살려도 공감이 안 된다. 죽은 사람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하는 데도 다 공감이 안 된다. 그런데 그 한자리만 공감이 된다. 우리 노력 없이 공감이 된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안식이 온다.

나는 우리 인생이 역설이라고 생각한다. 부정 속에 긍정이 있다. 밭에 묻힌 보화가 부정 속에 긍정이다. 그 밭에 쓸데없는 밭이 아니었겠는가? 보화에 비해서 너무 가치 없는 밭이다. 밭에 묻힌 보화가 다 부정 속에 긍정이다. 못 내려온 것은 부정인데 그 안에 긍정이 들어있다. 나를 살리는 것이 들어있다.

참 안식을 얻는 길은 그분과 공감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공감하려면 예수와 공감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과 공감이 된다. 그것이 역설 안에 있는 긍정이다. 부정 안에 있는 긍정이다.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부정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행복하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정숙희 자매라고 한 자매의 기념홀 헌판식을 했다. 벌써 죽은 지 6년인가 되었다. 우리 교회를 온지 얼마 되지 않았었다. 나는 교회를 전혀 믿지 않는 새 신자인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여전도회장까지 한 할 때까지 다 해본 자매였다. 아주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암이 걸렸다.

마지막에 살 자리를 찾으려고 문경에 왔다가 노\*준 형제와 서\*숙 자매를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 어렸을 때 동창이고 이웃집에 살던 사람이다. 찾아 온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들어왔던 자매인데 나는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다. 그 자매는 말씀만 듣고 나는 이야기만 들었지 직접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간증한 것을 우리교회 사랑방에 들어오면 서\*숙 자매가 자세히 증거해놓은 글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일도 많이 하고 재산을 많이 불렸다. 남편은 검찰청에 있었는데 월급 외에는 받아올 수 없는 사람인데 재산이 많다. 나는 월급을 가지고 재테크를 했나하고 생각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것을 자식들에게도 주고, 남편 몫을 주고, 자기가 살던 아현동 집을 교회에 기증하고 갔다.

그때 받으면서 너무 기특하기에 이것을 그냥 받지 말고 기념 홀을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시간이 오래 갔는데 이번에 헌판식을 하게 되었다. 죽어가면서 하는 간증들이 너무 아름다운 간증들이 나온다.

병으로 죽을 때 죽는 것을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하나 다 알고 죽는 사람도 있다. 자기가 어디까지 느끼느냐 하면 나는 나에게서 내 몸이 분리되고 있다고 말한다. 죽음을 그렇게까지 세밀하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한 시간 한 시간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증을 했으니까 그 간증이 너무 귀하다.

극한의 부정에서 극한의 긍정의 간증이 나왔다. 내가 이 교회를 못 만났으면 어쩔 뻔 했는가? 자기 병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가 급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말했다. 대구의 목사님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소 집회실을 기념 홀로 간판을 붙였다. 가기 전에 보고 가면 좋겠다.

영생에 이르는 길!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일하지 않으면 나도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내가 공감이 되는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이 왜 이런가? 이러면 이것이 끝장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석이 되면 부정이 긍정으로 해석이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한가? 인생이 해석이 된다. 전혀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기만 하면 해석이 된다. 아까 그 멘토는 그 사람을 알아주면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물론 방법은 방법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기만 하면 해석이 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복을 누리는 것으로 알아지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내가 4년 동안 내가 있던 교단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나왔는데, 나올 때는 그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내 인생이 해석이 되고 나니까 다 날아갔다. 아까 말한 그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내 일생에 처음으로 그런 고통을 당해보았다. 그것이 잊으려고 해서 잊어지는 것이 아니고,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내 의지로 그것을 없앤 것이 아니었다. 내 인생이 해석이 되니까 다 날아갔다.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된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 그 때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이다.

내 인생이 짝 해석이 되었다.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되니까 그 문제가 더 긍정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무가 썩은 갈잎을 먹고 산다. 좋은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파리 썩은 것을 먹고 산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열매만 거둬가고 나머지는 밭에 놔두고 가면 그 밭은 다른 비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지푸라기까지 다 가져가 버리니까 땅이 메마른다는 것이다. 벼만 싹 거둬가고 벼짚은 거기 두어 썩히면 다른 비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나무는 자기 썩은 이파리를 먹고 사는 것이다.

우리는 부정을 먹고 긍정이 나오는 것이지, 부정을 먹지 않고 긍정이 잘 안 나온다. 안식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안 맞는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마음에 안 맞는다. 그런데 그 안 맞은 거기서 긍정이 나온다. 왜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만 병이 들었는가? 이러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왜 이렇가? 이렇게 시작하면 해답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딱 해석이 된다. 어느 순간이 가면 해석되는 순간이 온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해석되는 순간이 온다. 해석이 되면 그것이 다 나에게 복이 된다.

요즘에 페이스 북을 보니까 좌우로 갈라져서 욕을 하는데, 무서울 정도로 서로가 독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러다가 6.25같은 전쟁이 나면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든다. 6.25때는 이러지는 않았다.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났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 희생이 된 것이 아니고, 서로 복수를 해서 희생을 당했다. 그런데 만일 지금 그런 전쟁이 난다면 한국 땅을 떠나야 된다. 못 산다. 분위기가 살벌하다. 지금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살벌하다.

이것이 모두 인생이 안식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다.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으니까 그렇게 막 표현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꼭 가난한 사람이나 농민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어찌 돌아갈지 모르겠다.

모두 지금 안식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오게 된다. 창세기 1장 1절을 모를 때, 우리는 안식이 없는데 그것을 알면 안식이 온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옛날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몇 년 동안 방황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딱 만나는 순간 그 생각이 싹 없어졌다. 있느냐 없느냐가 사라졌다. 나는 그냥 피조물이구나. 간단해졌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멘토가 있어서 개인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 두 사람이 그렇지 절대로 모든 사람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꼭 그것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

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다. 그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는 길을 주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한다. 내가 안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으로 되지 않는다. 찬양은 하겠지만, 찬양 예배라고 해서 한 시간 내내 찬양만 하는 예배도 있던데 그런 것은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만족을 하시겠는가? 자기가 지은 피조물들이 나를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만족이 되는 것이지만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될 수 없다. 아들로 예배가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다.

안식일! 이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할 말이다. 안식하면 공감한다. 하나님에게 공감하면 나는 안식이 된다. 예수에 공감하면 나는 안식이 된다. 그분의 부끄러움에 내가 공감을 하면 안식이 된다. 어쩌면 아주 너무 쉽고, 어쩌면 아주 불가능한 일이다. 너무 쉬운 것을 딱 잡으면 된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이 쉬운 것을 잡은 사람을 보니까 팔팔 땀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거기서 내 인생의 안식이 오기 때문이다.

모든 부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감사가 되고, 다 만족이 되고, 이것이 안식이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요한복음 5장을 자세히 읽으면서 더 깊은 은혜를 받기 원한다.

감사합니다.